

(718)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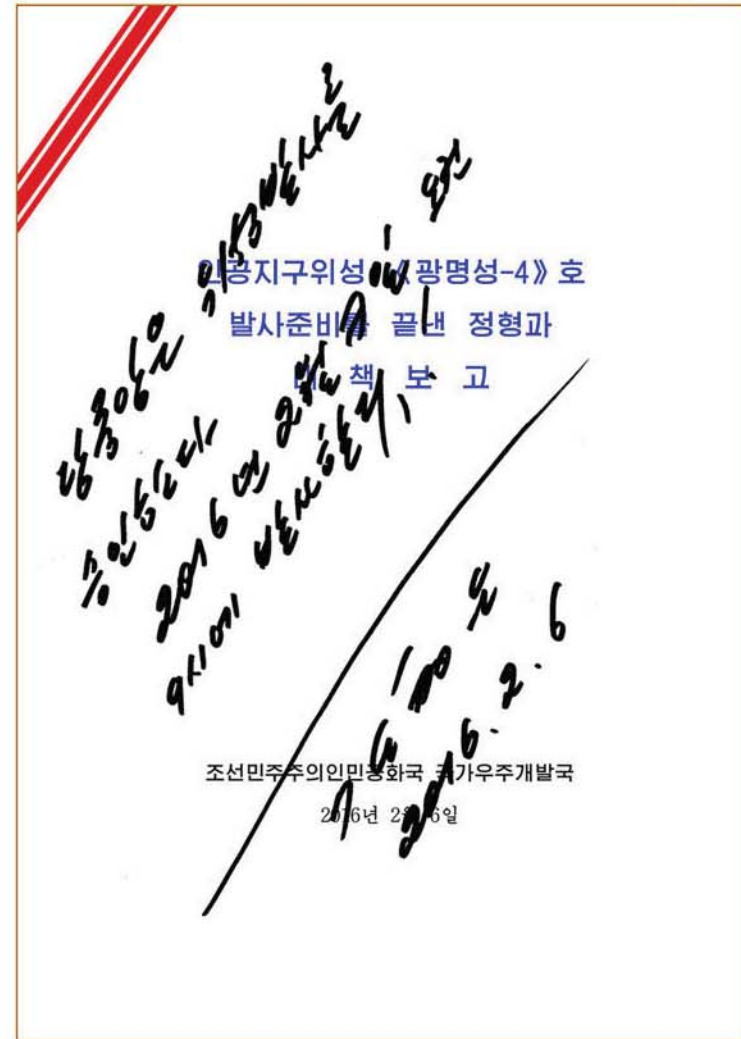
주체 105
(2016)

4



차 례

- 우주강국의 위용을 과시.....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
 -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2
 - 전인민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4
- 온 나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시여.....6
- 판문점초소에 남기신 불멸의 자욱.....8
- 인민군대를 행복의 창조자로.....10
-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로력적성파로
 -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일터.....14
 - 명상품, 명제품으로.....16
- 자연에너지 리용하여.....18
- 오가산자연보호구.....20
- 누구나 찾는 곳.....24
- 휘파람가수의 어제와 오늘.....26
-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여.....28
- 류경장미원.....30
-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리세광.....32
- 민족료리발전을 위하여.....34
- 소문난 류경치과병원.....36
-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김치담그기풍습.....38
- 민족악기-가야금.....39
- 굴욕적인 《합의》-분노한 민심.....40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5(2016)년 2월 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우 주 강 국 의 위 용 을 과 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성과적으로 발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 2016년 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완전성공하였다.

운반로켓 《광명성》호는 주체105(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4》호는 97.4°의 궤도경사각으로 근지점고도 494.6km, 원지점고도 500km인 극궤도를 돌고있으며 주기는 94분 24초이다.

《광명성-4》호에는 지구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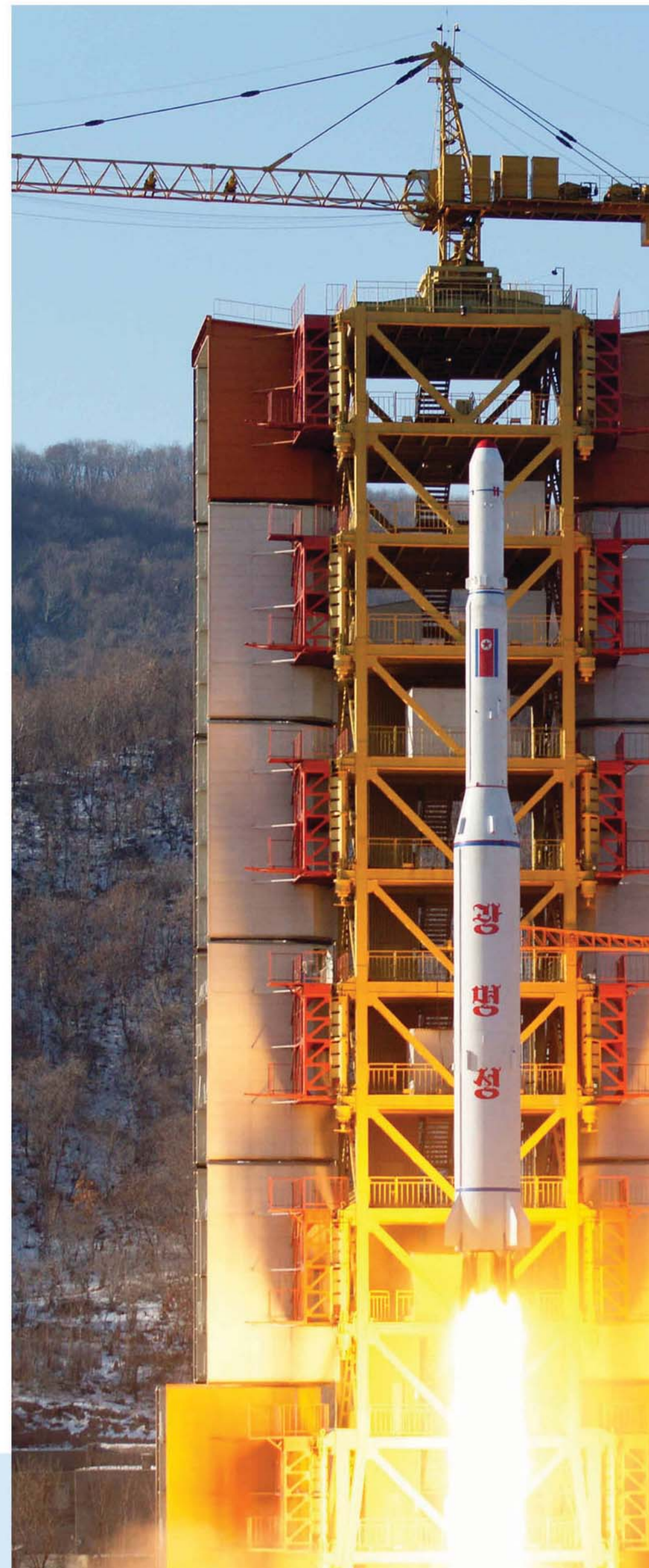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학

기술중시정책의 자랑찬 결실이며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새겨진 주체위성의 황홀한 비행운은 우리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김정은동지와 존엄높은 우리당,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충정의 선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앞으로도 주체의 위성들을 더 많이 만리대공으로 쏘아올릴것이다.

주체105(2016)년 2월 7일
평양





《광명성-4》호발사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보도가 랑독된데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이것은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또다시 온누리에 빛내인 특대사변이며 천만군민의 심장을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열화같은 애국의지로 끓게 하는 전인민적대경사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주강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그 기세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평양의 하늘가에는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펼쳐졌다.

지방들에서도 군민경축대회가 진행되었다.

온 나라가 명절처럼 흥성이는 속에 《광명성-4》호발사에 기여한 성원들이 수도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내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래현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있었다.



전인민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

주체87(1998)년 8월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자강력체일주의 높이 네번째의 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킨 이 위대한 사변은 다계단으로 비약하며 천하제일강국으로 뛰어오르는 조선의 배일을 그려보게 하는 장쾌한 승리의 축포성이다. 지난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진행되었다.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광장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주체의 위성강국의 주인된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15만여명의 군중들로 차넘치였다.

《김정은장군찬가》주악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지구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소식은 전체 인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안겨주었다.



벽동군 동주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46(1957)년 10월



평양대동문인민학교를 현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1(1972)년 9월



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66(1977)년 4월

온 나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이 세상 그 어느 부모도 줄수 없는 친아버이사랑을 안겨주시었다.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수없이 많았던 주체35(1946)년 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회의 의정으로 연필생산문제를 상정시키시여 자식들에게만은 연필을 쥐여주어 글을 배우게 하려는 인민의 세기적소망을 풀어주시도록 하신 그날로부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헌신의 로고를 오늘도 조선 인민은 가슴뜨겁게 전해가고있다.

현지도의 길을 가시다가도 학생들을 보시면 차를 멈추도록 하시고 책가방을 열어보시면서 학습장과 교과서는 다 있는가, 연필과 지우개는 어떤가에 대해서까지 세심히 살펴보고 학용품과 교과서보장대책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주체58(1969)년 6월 어느날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위원회를 소집하시고 학교건설문제를 토의하시면서 우리가 학부형이 아닙니까, 오늘의 이 정치위원회는 학부형회의를 한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사랑이 있어 도시와 농촌들에 훌륭한 학교들이 건설되었을뿐만아니라 외진 섬마을과 산간 마을에 2~3명의 학생들을 위한 분교들이 나와 학교가 학생들을 찾아가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졌다.

후대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신데 이어 당시 평양대동문인민학교와 개성시 동헌인민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을 찾으시여 나 어린 학생들의 쉼게기도 들어주시고 글씨를 쓰는것도 보아주시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는데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친아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 주시었다.



찾으시었다.

드넓은 운동장에 새옷을 입고 행복에 겨워 웃고있는 학생들을 이윽 토평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사진기를 드시고 한명한명 사진을 찍어주시었다.

그날 오랜 시간 사진을 찍어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득 사진기에서 눈을 떼시면서 《잘 보이지 않는구만!》라고 하시며 안경을 벗으시고 푸른 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실 때 수원들과 교원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어리었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창창한 래일을 위하여 한평생 학부형이 되시여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조선인민은 정녕 잊지 못하며 대를 이어 길이 길이 전해갈것이다.

글 정경복



적들과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 판문점초소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5(1996)년 11월

판문점초소에 남기신 불멸의 사옥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른 격동적인 시대를 기쁨과 환희속에 맞이하고있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23돐이 되는 4월 9일과 더불어 그이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크나큰 업적을 더욱 뜨겁게 새기고있다.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져주신 위대한 선군령장이 계시어 조선은 1990년대의 시련의 언덕을 넘어 마침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더욱 로골화된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공세는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그 어떤 최악의 역경도 뚫고넘는 력사의 기적을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공화국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 기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시고 군사선행의 원칙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진두에 서시어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오늘도 잊지 못하는 그이의 판문점시찰길도 이 나날에 있었다.

개성시에 위치하고있는 판문점은 조국해방 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인민앞에 항복하고 군사정전협정에 조인한 력사적인 장소이다.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군사분계선이 지나간 모든 지역이 그러하지만 몇뿔밖에 안되는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적아가 서로 총구를 맞대고있는 이곳과 같이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매일 매시각이 다치면 터질듯한 초긴장상태의 련속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남기신 친필을 새긴 비

그런 위험천만한 곳을 주체85(1996)년 11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시였던것이다.

이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 친필비와 정전담판회의장, 판문각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신 다음 이곳을 지켜선 인민군 군인들의 군무수행정형과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였으며 그들에게 백승의 담력과 용기를 안겨주고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쉬임없이 넘고넘으신 국력강화의 길을 따라 나라의 천리방선이 철벽의 요새로 다져지고 인민군대가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창조와 건설의 력사가 끊임없이 펼쳐질수 있었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정전협정조인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고수하며 그이께서 가리키신 승리의 한길로만 오직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세여지고있는것이다.

글 최광호



판문점

인민군대를 행복의 창조자로

오늘 조선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활짝 꽃피나는 창조와 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선군조선의 국력을 떨치고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갈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가는 이 거창한 시대의 앞장에는 언제나 인민군대가 서있다.

조국의 수호자로서만이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가 되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인민군인들의 영웅적위훈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하는 인민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어디서나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리고있다.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기록된 고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문명강국건설의 뿌리가 되고 돌격대가 될 때 이 땅우에는 고귀한 인민의 재부들이 차고넘치고 조국의 푸른 하늘에는 사회주의 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인민군대를 문명국건설의 전역들에 파견하시어 시대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전국을 일신시키도록 하시었다.

산세험한 마식령지구에 인민들에게 안겨줄 스키장건설을 맡기하시고 인민군대에 건설을 맡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에는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영웅적위훈을 떨쳐가는 군인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건설을 끝냄으로써 온 나라가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호소문을 보내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하여 남들 같으면 10년이상 걸려야 하는 스키장건설을 최단기간에 완공할수 있었다.

지난해 8월 라선지구에 들이닥친 큰물로 하여 재해를 입은 인민들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중대사로 정치군사적문제들을 토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사업을 인민군대가 전적으로 맡아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그리고 하늘길, 바다길, 령길을 달려 조국방북변 라선전역의 병사들을 찾아가시어 힘을 주고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시다.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정말 잘했다고, 이번 전투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풍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 과정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제 남은것은 새집들이라고,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집들이를 도와주는것을 비롯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귀대하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현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9월





마식령스키장을 찾은 근로자들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한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섰다.

과학기술전당



원산육아원, 애육원, 평양양로원이 훌륭히 꾸러졌다.



룡라인민유원지의 전자오락장에서

여야 한다고 당부하실 때 인민군군인들은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에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어주시고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해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군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시대의 선구자로 역세게 자라났으며 이 땅우에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쳐오르게 되었다.

지난해에만도 인민군군인들은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원산육아원, 애육원 등을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웠으며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큰물피해를 완전히 가시는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웅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새 기적창조의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사진, 글 김충복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일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생산에서 끊임 없는 혁신을 일으키나가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해주는것을 변함없는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공지와 자랑을 안고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교복 천생산에서 계속 성과를 확대하는것과 함께 능력이 큰 가방용천생산 공정을 짧은 기간에 꾸려나갔다.

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앞서나갈 배짱을 지니고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 그리고 평양방직기계공장의 기술자, 노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트론인견실을 가지고 유연창대직기로 이 천을 짜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와 함께 염색전과정을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조종하며 염색공정에서 다품종, 소량화생산체제를 실현할수 있는 정밀도가 매우 높은 고온고압로라염색기들이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제작되어 이곳에 설치되었다.

직포종합직장 3직포직장에서는 모든 직포공들이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새로운 기대들에 정통하도록 함으로써 직기들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있다.

염색종합직장 가공직장의 기대공들도 설비관리를 알뜰하게 하고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켜 제품의 실수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되는 가방용천들은 그 질이 높을뿐 아니라 색깔들도 다양하여 학생들의 책가방은 물론 여러가지 종류의 가방들도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담보하고있다.

사진, 글 리명국



새로운 염색기술을 창안도입하여
가방용천생산을 늘이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된 천으로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들



명 상품, 명 제 품 으 로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금곶체육인종합 식료공장은 체육인들을 위한 영양식품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종 식료제품들을 생산하는 식품가공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적인 식료공장으로서 전변시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펼쳐나선 건설자들과 일군들, 종업원들은 한해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공장을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변모시켰다.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개건된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은 고도로 집약화되었다. 과학적인 타산밑에 설비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모든 공정들이 립체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개건함으로써 공장에서는 부지면적과 로력을 늘이지 않고도 제품생산량을 종전에 비해 1.5배로 장성시켰다. 그리고 제품출하장에 기발하게 착상한 미끄럼식 운반기를 설치한것을 비롯하여 로력절약형, 에네르기 절약형공장으로 전변되었다.

공장에는 식료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와 기호가 끊임없이 변하는데 맞게 과학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통합생산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었으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이 담보되게 꾸려지고 현대적인 분석설비들과 위생통과시설들, 공기정화설비들이 그췌히 갖추어져 무균화, 무진화수준도 매우 높다. 공장에는 껌생산공정도 새로 꾸려짐으로써 제품의 가지수가 19종에 100여가지로 늘어났다. 공장에서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데 맞게 종업원들에 대한 원격교육과 과학기술보급사업에 힘을 넣고있으며 인재선발과 양성, 평가, 등록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인재관리사업도 실속있게 하고있다. 《금곶》상표를 단 공장의 제품들에 대한 호평이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혁신의 동음 높이가 올라가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양양된 열의는 그대로 호평받는 제품들의 질과 량으로 이어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종합조종실





풍력자원도 리용하고있다.



살림집과 온실들에도 태양열에 의한 물가열기들이 설치되어 그 덕을 보고있다.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현시기 화석에너지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온난화로 생태환경이 파괴됨에 따라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리용하고있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조선에서는 지열과 풍력, 태양열과 생물질 등의 자연에너지개발과 리용에 힘을 넣고있다.

자연에너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을 내오고 태양빛을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 태양열에 의한 물가열기제작과 설치, 생물질을 리용하는 메탄가스생산에서 성과들을 이룩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지난해에 에너지절약형건축물, 녹색건축물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태양빛과 지열 등 자연에너지로 조명, 냉난방을 보장하고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이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를 도입하여 그 덕을 보고있다.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풍부한 풍력자원을 적극 개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평안남도 문덕군체신소 서호체신분소에서는 풍력발전기와 태양빛전지에 의한 통신보장체계를 실시하고있으며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에서는 태양빛전지판으로 얻은 전기를 교수교양사업에 적극 리용하고있다.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과 만경대구역의 남리부락 매집들에는 태양열에 의한 물가열기들이 설치되고 태양빛전지판으로 얻은 전기로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다.

또한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각지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원들에는 태양전지판을 리용한 정원등이 설치되어 공원의 조명을 보장하고있다.

풍력과 태양열, 생물질을 에너지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나라의 자연에너지발전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을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마련되고있다.

사진, 글 김충복



태양빛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오 가 산 자 연 보 호 구



오가산자연보호구의 사계절

조선의 북부 자강도 화평군과 량강도 김형직군의 경계에 오가산자연보호구가 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해발고가 1 227m 이고 10여개의 산봉우리들이 서로 련결되어 있으며 산릉선들의 생김새는 대체로 둥그스름하고 평평하며 너비는 비교적 넓다.

토양은 화강편마암과 화강암우에 발달한 갈색산림토양과 표백화갈색산림토양이다.

오가산지역은 넓은잎나무숲의 북부분포한계선과 바늘잎나무숲의 남부분포한계선이 겹쳐있는 지역이므로 종적구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세계식물구계의 견지에서 볼 때 전북구 동부아시아구에 속하며 조선의 식물분포구안에서는 아한대성식물분포구와 온대성식물분포구(북부구)와의 경계를 이루고있어 식물종구성이 다양하고 그 분포가 특수한것으로 알려져있다.

보호구의 총면적은 수천여정보에 달하며 1 330여종의 동식물이 있다.

동물들의 서식조건이 매우 유리하여 오가산자연보호구에서는 산짐승류와 새류들을

비롯한 랑서류, 파충류, 물고기류 등 수백종의 동물들이 살고있다.

자연보호구에는 조선에서 사는 짐승류가운데서 45. 34%에 달하는 짐승들이 퍼져있고 새류는 32%, 뱀류는 41. 66%, 민물고기는 13. 5%로서 다른 지대에 비하여 동물상의 종구성과 마리수가 풍부하다.

보호구에는 오가산주목, 오가산갯나무, 오가산피나무, 오가산신갈나무, 오가산원시림 등 천연기념물들이 있다.

주목을 끄는것은 조선에서 그 형성력사가

제일 오랜 원시림지대이다.

800정도에 달하는 오가산원시림에는 400 ~600년되는 나무들이 많고 1 000년이상 자란 나무들도 있다.

오늘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보호관리되고있으며 생태적 특성에 대한 연구사업이 강화되어 리로운 동식물 자원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사진 림광덕 글 강수정

오가산자연보호구에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자라고있다.





누구나 찾는 곳

- 평안남도 안주시미래원 -



원격강의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을 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는 조선에서는 모든 시, 군들에 대중과학기술보급을 위한 미래원들이 일떠서고있다.

평안남도 안주시에서는 지난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근로자들의 높은 애국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대적인 미래원을 건설하였다.

2 000여㎡의 부지에 2층으로 건설된 안주시 미래원에는 현대과학기술자료와 최신성과자료들을 비롯하여 누구나 알고싶고 보고싶은 자료들을 언제나 열람할수 있는 전자열람실을 비롯하여 목록검색실, 다매체열람실, 원격강의실이 있다.

여기에서는 평양의 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과 망열람도 하고 여러 원격대학들의 교육도 받을수 있다.



안주시도시건설사업소
직장장 안인덕

미래원에서 원격강의를 받고
기술자료열람도 하면서 찾아낸
건설공법이 우리 사업소가 맡은
대상건설을 앞당길수 있게
하였다.

정말 미래원이야말로 지식의
탐을 높여주고 탐구의 문을
열어주는 지식서고, 기술서고
이다.



안주시 남천초급중학교
학생 오성준

미래원에서 컴퓨터를 배우
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져
주는 여러가지 자연현상에
대한 생동한 자료들을 많이
볼수 있어 좋을뿐아니라 실
참에 전자오락을 하니 시간
가는줄 모르겠다.

정말 오면 가고싶지 않고
가면 또 오고싶은 곳이다.

미래원에는 컴퓨터를 배우는 소학교, 초급
중학교, 고급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학습
실과 이들이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
을 주는 학생전자열람실도 있다.

그리고 도서와 잡지, 신문들을 볼수 있는
열람홀과 열람실들도 꾸려져있다.

독자들과 기관, 기업소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열람, 망열람, 원격강의, 원격
대학교육, 문답봉사, 인쇄봉사를 해주고있는
안주시미래원으로는 지금 많은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속에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자기가 일하
는 공장과 기업소를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나라의 자원과 기술로 더 좋은 설비와 제품
들을 만들어내려는 열의를 안고 과학기술자료
들을 탐구하는 일군들과 기술자들도 있고 원격
교육대학의 강의를 받는 근로자들도 있다.

학생소년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컴퓨터를 다루는 방법을 숙련하기에 여념
이 없다.

학생소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려놓은
전자오락실 또한 그들의 열의를 높여주는 장소
로 되고있다.

안주시안의 근로자들은 미래원이 있어 가치
있는 발명들이 많이 나오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적극 실현되고있다고 하면서 미래원
이야말로 과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기술서고,
지식서고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사진, 글 리광성



전자열람실, 컴퓨터학습실, 전자오락실도 꾸려져있다.



인민들속에 휘파람가수로 널리 알려진
전 보천보전자악단 인민배우 전혜영



외국공연의 나날에 주체80(1991)년

휘파람가수의 어제와 오늘

어제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

1990년에 창작된 노래 《휘파람》은 조선인민들모두가 즐겨부르며 사랑하는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졌을뿐아니라 이 노래를 부른 배우 역시 휘파람가수로 유명하다.

오늘은 어제를 즐겁게 추억하고 래일은 오늘을 기쁘게 추억한다는 말도 있듯이 조선인민들의 기억속에 휘파람가수로 새겨진 전 보천보 전자악단 인민배우 전혜영.

주체61(1972)년 8월 10일 평범한 노동자가정의 둘째딸로 태어난 그녀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여기서 펼쳐본다.

어제날의 일기장을 펼치고

X X X

주체66(1977)년 6월 1일

나는 오늘 전국유치원어린이예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난 이름난 독창가수가 되는 꿈을 꾸고있다.

X X X

주체71(1982)년 7월 30일

오늘 나는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아 내 살을 자주 꼬집어보았다.

아니글쎄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들의 공연을 보아주신것이였다.

조선소년단창립 36돛기념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1등을 한 내가 이런 영광의 무대에서 독창을 불러 아버지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줄이야.

정말 꿈아닌 이 행복을 잊을수 없다.

X X X

주체72(1983)년 3월 30일

금성고등중학교에 입학하여 궁전무대에서 노래를 마음껏 부를수 있



어린시절의 전혜영



훌륭한 성악가수후비들을 키우기 위하여 정열을 바쳐가고있는 전혜영

게 된 나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한 성원으로 일본방문공연의 길에 올랐다.

일본땅에서 내가 부른 노래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가 온 장내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나도 울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조국을 그리며 민족의 뉘를 지켜가는 동포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들 모두가 울었고 또 재청의 박수도 보내었다.

...

전혜영이 보천보전자악단의 대중가요가수가 되어 주체80(1991)년 가을에 또다시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그는 《휘파람가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출판물들과 통신들은 그의 개성적인 목소리와 활달하고 세련된 모습에 대해 광범히 보도하였다.

조선인민의 기억속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휘파람가수 전혜영은 애송이음악소녀의 꿈을 성취하여 200여곡에 달하는 독창곡들을 훌륭히 형상하였고 주체81(1992)년에는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았다.

무대를 떠나도

현재 전혜영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조과 성악지도교원으로 후대 교육사업에 열정을 다바치고있다.

그가 무대를 떠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는 《감정덩어리》, 《박수를 끌고다니는 배우》로 불리워지고있다.

어느덧 13살나는 딸을 가진 40대중엽에 이른 전혜영이지만 매력있고 우아한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맑고 청신하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변함없는 노래소리는 류다른 사연을 안고있다.

전혜영이 최절정의 인기와 보천보전자악단의 얼굴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만사람의 절찬을 받고있던 나날에 뜻밖에 성대마비라는 무서운 암흑과 맞닥들였다.

(이젠 내가 무대를 떠나야 한단 말인가, 이것으로 나의 노래는 끝나는 것인가.)

고민과 번민에 모래길 때 나라에서는 그에게 최상의 의료조치를 취해 주고 원상회복되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었다.

평범한 탄광노동자의 딸이 안고있는 천성적소질은 영원히 사라질뻔 했지만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이 있어 두번다시 태어난 휘파람가수의 재능은 그후에도 시대를 격동시키는 명곡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전혜영이 대중가요가수후비육성을 위해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성악지도교원이 된지 5년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오늘도 무대우에서 계속 이어지였다.

주체104(2015)년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와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1만명대공연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에서 전혜영은 처녀시절처럼 노래들을 감명깊게 불러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였다.

무대를 떠났어도 전혜영은 언제나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민 배우로 남아있다.

전혜영은 유명한 휘파람가수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고마움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제2, 제3의 휘파람가수들을 키워가는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고있다.

어린시절의 꿈을 후대들에게 심어주며...

사진 김윤혁 글 강수정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여

조선로동당의 인재강국건설구상을 받드는데서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여 나라의 전반적교육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려는



교육과학원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주체48(1959)년 12월에 창립된 교육과학원은 조선의 교육발전을 추동하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중앙교육과학연구기관이다.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단위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은 거의나 이곳의 여러 연구기지들에 있는 수많은 학위 학직소유자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연구력량에 의해서 해결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데 맞게 학교전교육으로부터 학교 교육의 매 단계에 따르는 교육범위와 수준을 다시 정하고 30여종의 교재들을 집필한데 이어 다기능화된 교실 등 교수형식과 방법의 여러 본보기를 창조하여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한 보통교육과학연구소 연구사들의 연구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고등 및 사범 교육연구소의 연구사들도 세계 교육과학사전찬과 세계 교육과학자료기지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교육과학의 령마루를 점령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원격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교수강습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 교수강습소 교원들의 노력이 끊임없이 증대되고있으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에 반영된 각 과목의 다매체편집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교육전자다매체편집물제작사 연구사, 기자, 편집원들과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을 연구제작하기 위한 교육설비제작보급소 연구사들과 실험공들의 열의도 드물다.
모든 교원, 연구사들의 연구사업이 그들의 실무적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는 속에 해마다 수십건의 가치있는 학위논문들이 완성되고있다.
그리고 현실에 자주 나가서 새로운 교재들과 교수형식, 교육방법들의 효과성을 료해검증하고 부단히 발전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즐기 차게 진행되고있다.
그러한 가운데 나라의 교육수준도 나날이 더욱 높아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점기상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요구에 맞게 교수방법과 교육설비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류경 장미원

평양의 대동강반에 조선로동당의 인민증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되어 웅장하게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에 류경 장미원이 자리잡고있다.

풀색타일을 붙인 건물의 정면에 명칭과 조화를 이루며 부각장식되어있는 금방 망울을 터친 듯한 한송이의 붉은 장미꽃형상은 이 종합적인 봉사기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듯싶다.

1층의 남, 녀목욕탕, 리발실과 2층의 미안실,

미용실, 건강체조운동실, 탁구장, 벽정구실, 만장층의 식사실과 로대식사실 등 이곳에 꾸려져있는 거의 모든 문화후생 및 체육시설들의 운영이 장미와의 련관속에 있다.

이곳에서 가장 특색있는것은 장미수와 말린 장미꽃잎을 리용하는 장미수목욕실이다.

장미정유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장미수는 피부보호효과가 높고 영양상태개선 및 평형보장작용이 뚜렷한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하여 장미수목욕을 하면 피부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수분과 탄성이 잘 유지되는것과 함께 피로가 빨리 해소되어 몸이 거뜨할뿐아니라 비뇨기계통질병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다고 한다.

이곳의 미안과 안마, 실내건강체육시설들에서도 장미수와 장미정유가 포함된 크림 등을 리용하여 봉사를 하고있다.

그리고 만발한 장미꽃의 향기속에 묻힌듯싶은 식사실들에서의 봉사항목에도 장미꽃차가 꼭 포함되어있다.

장미꽃차는 독특한 향기와 부드러우면서도 순한 맛을 가지고있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로를 푸는데서 효능이 높다고 하면서 이곳 지배인 방정철은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려는 공화국의 정책이 구현된 류경장미원으로 매일같이 교육자, 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아와 아름다움과 젊음을 찾고있다고 긍지높이 말한다.

사진, 글 진영호



장미수목욕실



류경장미원에는 목욕, 한증간은 물론 탁구장, 건강체조운동실 등 문화후생 및 체육시설들이 꾸려져있다.



2중세계선수권보유자-리세광



제6차 국제체조련맹 기계체조도전경기대회
남자조마운동경기에서 제1위를 쟁취한
4. 25체육단 기계체조선수 리세광

국제체조계에 출현한 《리세광동작》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공중 3바퀴돌아서 360°방향바꾸어 돌아내
리기와 공중에서 몸을 《1》자로 만든 다음 앞으로
3바퀴돌고 다시 몸을 펴고 180°돌아내리는 동작들
이다.

국제체조련맹에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리세광
동작》으로 명명한 이 동작들의 주인공은 4. 25체육단
의 기계체조선수 리세광이다.

평범한 사무원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체조를 시작한
것은 7살때부터였다.

철봉에서 운동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그를 보고 부모
들은 총각애이니 그럴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교원들은 그에게서 체조선수로서의
재능의 싹을 보았다.

하여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체조
소조에 들어간 그는 기계체조의 동작과 기술들을 하나
하나 익히기 시작하였다.

남달리 운동감각이 예민한 그는 그후 국내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하여 인차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4. 25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그는 최고급의
기술동작들을 련마하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하
였다.

그의 노력은 그후 수많은 국내 및 국제경기들에서의
우승으로 이어졌다.

2012년에 2중아시아선수권보유자가 된 그는 제45차,
제46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도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리세광동작》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하였던것이다.

경기를 보던 관중들모두가 그에 대하여 놀라움과
찬탄을 금치 못하였으며 심사성원들은 그에게 최고
점수를 주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선수, 이것이 전문가들과
관중들의 평가였다.

하여 그는 2중세계선수권보유자가 되었다.

리세광은 말한다.

《조마운동경기에서 동작을 수행하는것은 불과
몇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을 빛내이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것이다.》

사진 홍광남 글 김선경



민족 요리 발전을 위하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온 조선민족은 장구한 기간에 걸쳐 고유하고 독특한 민족요리를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여왔다.

근 30년의 년륜을 새겨오는 조선요리협회는 지난 기간 조선요리를 발전시키고 나라의 전반적인 요리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협회는 다양한 민족요리기술들을 널리 일반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요리경연, 품평회, 실기강습, 전습 등 민족요리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해마다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고있다.

민족요리의 고유한 특성을 원만히 살려나가기 위한 요리의 과학화, 표준화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뿐만아니라 가정들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수 있는 민족음식들을 널리 보급선전하기 위한 사업과 다양한 민족요리기술들을 널리 일반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대중운동도 광범히 벌리고있다.

잡지 《조선요리》와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요리》를 통하여 민족요리의 우월성과 만드는 방법, 민족음식을 발전풍부화하는데서 모범적인 급양봉사단원들, 개별적인물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급양봉사부문 교육기관들에서 재능있는 민족요리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며 연구기관들이 민족요리를 발전시키는데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후원사업도 진행하고있다.

협회는 세계요리사련맹 가입단체로서 여러 나라 요리협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제적인 요리경기들과 실습, 참관 등을 통한 기술교류활동을 활발히 벌려 조선요리의 특징과 우월성을 보여주고 국제적인 음식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있다.

사진, 글 홍래웅



요리발전을 위한 참고서발행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주체79(1990)년 9월 룡생부르그에서 진행된 세계요리컵쟁탈경기에서 조선요리협회선수들이 수여받은 메달과 시계

요리기술과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선요리》와 출판물들의 일부





소문난 류경치과병원



그들이 연구한 이뿌리절제술과 임플란트에 의한 부정교합치료를 비롯한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이 치료예방사업에 도입되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보다 현대적인 의료봉사를 받는데 이바지되고있다.

그들은 18종의 36개에 달하는 위생선전소개판들과 다매체편집물 《이발과 건강》, 《지치주위염을 미리 막자》 등도 만들어 사람들이

치과위생상식을 넓혀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리용하고있다.
기술부원장 서영찬은 말한다.

《중요한것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 높은 의술입니다.》

사진 진주동 글 김선경

건강장수의 비결의 하나는 섭생에 있으며 섭생에서 기본은 이발이다.

하기에 이발이 튼튼하여야 오래 산다는 말도 나왔을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것이 바로 치과에 대한것인지.

류경치과병원은 개원한지 얼마 안되지만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병원이 현대적인 의료설비들을 갖추고있어서 만이 아니다.

그것은 이곳 의료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치과질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요구에 맞게 언제나 짜고들어 진행하고있기때문이다.

자질향상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토론회와 기술학습을 통하여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세계적인 치과의학발전추세와 발전된 치과치료기술도 배우고있다.

림상실천적의의가 큰 의료기술들을 연구도입하여 의료봉사의 과학화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김치담그기풍습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김치담그기풍습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되었다.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립동을 전후로 하여 가을에 수확한 남새로 김치를 담그어 먹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다.

김치는 조선사람들의 음식문화에서 가장 특색있는것이며 김치를 담그는 풍습역시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내려오면서 조선민족에게서만 보게 되는 이채로운것이다.

김치는 배추, 무우와 같은 남새와 산나물 등을 양념감과 함께 과일이나 고기, 물고기 또는 젓갈 등으로 잘 배합하여 젓산발효시킨 부식물로서 발효과정에 각이한 재료의 맛들이 서로 잘 조화되어 독특한 맛을 낸다.

조선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1 000여년전인 고려시기부터 무우, 배추, 마늘, 고추, 소금 등으로 오지독에 김치를 담그어왔는데 겨울에 김치를 담그는것을 가정에서 년중의 큰일로 여기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계절에 따라 김치를 담그어 식생활에 리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겨울철의 김치담그기풍습은 그야말로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이채로운 풍경이었다.

조선사람들은 나라의 기후상특성을 고려하여 남새를 초겨울에 많이 저장하여 겨울한철은 물론 늦은 봄까지 오래두고 먹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창안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김치를 담그는것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겨울철김치담그기는 겨울철 반식량준비라고 할만큼 중요한 일로 간주되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김치담그기풍습은 오늘날도 년중의 큰일로 사람들의 생활에 년년이 전해지고있으며 조선민족음식의 자랑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다.

조선김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세계5대건강식품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나라의 통신은 김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조선에서는 비타민이 풍부한 민족음식인 김치가 온갖 질병을 막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있다, 김치는 절인 배추로 만든 독특한 음식이다, 많은 량의 김치섭취는 여러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게 한다, 조선사람들의 식탁에 반드시 오르는 김치에는 비타민, 필수아미노산, 광물질들이 함유되어있다고 전하였다.

김치는 비타민과 광물질의 중요한 공급원천으로 되고있다.

남새가 바른 겨울철에는 비타민을 정상적으로 섭취할수 있게 해주며 산성식품에 대한 식욕을 높여주고 영양소모를 막아주는 건강장수식품, 바로 이것이 조선의 민족음식인 김치이다.

지난해 12월 초 나미비아의 수도 윈드후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비물질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는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의 하나인 김치담그기풍습을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고 결정하였다.

사진, 글 박병훈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민족의 김치담그기풍습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민족악기 - 가야금



6세기초엽에 만들어진 가야금

가야금은 조선의 고유한 민족현악기이다.

가야금이란 이름은 조선력사에서 1세기 중엽으로부터 6세기 중엽경까지 락동강하류 류역 일대에 존재한 봉건국가였던 가야국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불리워진것이다.

가야금은 우륵(6세기 초엽에 활동한 음악가)이 창안제작하였다.

초기 가야금은 여러개의 줄을 가진 뜰음줄악기였다.

속을 파낸 오동나무를 울림통으로 하고 그 량면에 이동패들을 세웠으며 패우에 1년 12달을 상징하여 12개의 줄을 메었다.

소리는 줄과 울림통을 통해 울려나오게 되어 있었다.

해방(1945. 8. 15.)후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민족음악건설로선에 따라 민족음악이 발전하면서 가야금은 울림통, 줄, 이동패, 줄베개, 머리, 꼬리, 줄조임못, 다리, 울림구멍 등으로 된 구조를 갖추고 개량되었으며 줄수는 21줄로 늘어났다.

그리고 초기의 5음계체제로부터 7음계체제로 음을 맞추게 되었으며 음역이 훨씬 넓어져 그 연주법도 보충발전되었다.

오른손으로만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는 통현만 하면서 주로 단선률만 연주하던것이 두손으로 소리를 내는 새로운 연주법들이 도입되었다.

하여 가야금의 고유한 주법들을 살리면서 여러가지의 다성음악을 훌륭히 연주하고있다.

가야금은 독주악기뿐만아니라 가야금병창, 가야금독병창, 가야금합주, 민족기악병창에서 기본선률을 담당하여 선률 및 리듬악기로 중요하게 리용되고있다.

가야금은 《씨 ㅂ》조악기이며 음은 소옥타브 《솔》부터 3옥타브 《화》까지 본음제로 맞춘다.

가야금은 조선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민족악기로 널리 애용되고있다.

글 김은경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버린 당국의 굴욕적인 《합의》를 규탄하는 남조선의 시민단체들과 인민들



일본의 특대형반인륜적범죄를 덮어버린 남조선당국의 매국적인 굴욕행위가 온 남조선 땅을 분노의 도가니로 끓여버지게 하고있다.

지난해말 남조선당국과 일본은 일본군성노예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룩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위안부로 끌고다니며 온갖 비인간적만행을 감행한 반인륜적행위로부터 발생되었다.

이 잔악무도한 성노예범죄는 국가적,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고있는 일본에 의해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보고있는데 남조선당국은 일본이 《위안부지원재단》이라는데 몇푼의 돈을 댄다는 대가로 이 범죄를 무마시키기로 하였을뿐아니라 서울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를 형상한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밀약하는 등 전대미문의 굴욕행위를 저지른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관련단체는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 종교인,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의 치솟는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들은 《최악의 외교참사》, 《일본에 면죄부를 준 매국협정》으로 이를 준렬히 규탄하면서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과 시국선언발표 등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경기도에서 사는 88살난 피해자할머니는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당국이 이 땅의 모든 할머니, 어머니들을 팔아먹고 력사와 민족을 팔아먹은 천추에 용납못할 반역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당국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는 매국적인 합의를 꾸며낸것은 일본이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쓰는 비렬한 수법을 용인하고 다시한번 민족에게 수치와 모욕을 강요하는 범죄행위라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원들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지난 2015년에 돌아간 9명의 피해자할머니들을 추모하면서 이번 《합의》는 진정어린 사죄도 없고 법적인 배상 책임리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굴욕적인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규탄하였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대학생단체의 성원들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대상으로

기습시위를 벌리였으며 예술인들과 시민들, 대학생들은 일본대사관앞에 모여 문화행사의 형식으로 남조선당국과 일본이 꾸며낸 《합의》를 조소하였다.

일본대사관앞을 비롯한 도처에서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남조선당국과 일본의 《합의》를 규탄하고 전면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와 시위가 계속 전개되고있으며 정계에서도 당국의 친일매국행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당국이 일본의 특대형 반인륜적전쟁범죄를 지우고 가리워주는 손바닥이 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집회와 시위참가자들은 물론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서 민족앞에 저지른 일본의 과거범죄를 눈감아주는 남조선당국에 대한 항의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고있다.

글 최광호



경

축